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韓·日 比較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aring Attitudes of Parents and Psycho-sociogenic Aspects of Their Children's Personalities between Korea and Japan

영남대학교 가정대학
강사 홍상욱
Dep. of Home Economics, Yeong Nam University
Lecture; **Sang Ook Hong**

<目 次>	
I. 問題意識 및 作業假說	4. 分析構造
II. 方 法	III. 結 果
1. 研究의 對象	IV. 結論 및 今後的 課題
2. 資料處理의 절차	參考文獻
3. 指 標 化	

<Abstract>

This paper is aimed at comparing the attitudes of parents and the psycho-sociogenic aspects of the children of Korea and Japan. The data for the analysis were derived from questionnaires administered to the 4th, 5th, and 6th-grade children in Korea and Japan.

The questionnaires were designed to survey children's perception of their parents' child-rearing and the psycho-sociogenic aspects of the children's personality in Korea and Japan. The child-parent relationships identified by the children were measured by the items (on the Test for Diagnosis of child-parent relationships developed by Tanaka) indicating the degree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felt their parents' dissatisfaction, complaints, strictness, expectation, interference, worry, indulgence, blind obedience, contradiction and disagreement. The psycho-sociogenic aspects of the children's personalities were measured by the items indicating the degree and extent of how they felt about their own sociability, independence, aggressiveness, participation in groups. Spontaneity, self-control and public spirit.

The findings derived from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were as follows.

1) The child-parent relationships in Korea and Japan were found to have remarkable differences. Korean children's sense of their parents' dissatisfaction and disagreement were more positive than those of the Japanese children. While for the children in Japan, their parent's strictness, expectation, interference, worry,

indulgence, blind obedience and contradiction were recognized more positively than those of the children in Korea.

2) In Korea, boys had a more positive view of child-parent relationships than girls. In Japan, for boys, their relationships between their mothers and themselves were more positive than the relationships with fathers. For girls, the relationships with fathers were much better than the relationships with mothers.

3) The psycho-sociogenic aspects of the children's personality between Korea and Japan had many remarkable differences. Independent trait of the psycho-sociogenic aspects of the children's personality in Japan were stronger than the children in Korea. However, sociability, needs for participating in groups, spontaneity, self-control and public spirit of the psycho-sociogenic aspects of the children in Korea were stronger than those of the children in Japan.

4) In Japan, girls had more positive psycho-sociogenic aspects than boys, while there was no sex difference in Korea. For boys,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boys of Korea showed more positive tendencies than the boys of Japan. However, the girls of both Korea and Japan showed that they had almost the same psycho-sociogenic aspects.

5) In both Korea and Japan, the children who recognized their parent's attitudes as being to a certain degree for their protection and obedience, and not simply as excessive refusals or domination, were developed more in their psycho-sociogenic aspects.

As far as the data is concerned, we might say that the Japanese child-parent relationship and the psycho-sociogenic aspects of children's personality are clearly different from those of Korea. And also, the findings stated above seem to suggest that the difference of cultures and the systems of the societies have had very important effects on forming the children's personality and we can say that desirable rearing attitudes positively influence children's psycho-sociogenic development.

I. 問題意識 및 作業假說

어린이를 둘러싼 環境으로서 보통 家庭, 學校, 社會를 들 수 있으며, 이들 環境은 모두 어린이의 成長發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教育環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家庭은 어린이의 최초의 生活의 장소, 學習의 장소로서, 또 장래 生活의 基礎가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 오고 있다. 어린이의 발달에 관계되는 家庭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으나 보통, 家庭이라고 해도 여러가지 要因을 생각할 수가 있으며, 최근은 어린이를 둘러싼 物的環境, 家庭의 物的要因이 직접·간접으로 어린이의

成長에 관계된다고 하는 데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¹⁾. 그러나 가족관계, 부모 자녀관계, 家庭의 분위기 등의 心理的 人間關係的 要因이 더 직접적으로 어린이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의 養育態度,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다루는가등에 대해 從來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研究되어 오고 있으며, 부모의 態度의 構成을 保護와 支配의 2개의 次元으로 公式化한 Symonds, P.M의 研究는 因子分析의 方法도 가해져서 오늘날까지 부모·자녀관계의 次元을 나타내는데 많이 引用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가 여러가지 要因이 관계되어 있는 dynamic 한 복잡한 관계임을 고려하면 더욱 다각

적으로 檢討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자녀관계를 研究하는데 있어서 많은 課題를 생각할 수 있으나, 筆者는 부모의 態度를 規定하는 要因과 어린이의 心理·社會的 特性的 2가지의 側面으로부터 접근을 試圖해 보려고 한다. 우선 第1의 問題로서, 어떠한 부모도 일반적으로는 모두 어린이의 進전한 成長을 바라고 있으며, 문제성이 있는 養育態度로 자녀를 다루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모의 養育態度에는 여러가지 相違가 보여지는데, 그것은 어떠한 要因에 기인하는 것이며, 또 부모의 養育態度를 어떠한 조건이 規定하는 것인가. 부모의 養育態度를 規定하는 要件으로서 小西²⁾는 부모가 가지는 자녀에 대한 養育觀, 兒童觀은 文化·社會的인데에 기반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더구나 부모의 行동을 강하게 규정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柏木³⁾도 家庭教育觀, 子女觀, 發達觀, 期待觀 등이 자녀의 가정교육에 크게 規制的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것은, 부모 자신, 社會的, 國家的, 傳統的인 것의 소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養育態度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人間이 家族속에서 기본적인 家庭教育를 받으며 文化를 傳承해 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家庭教育를 담당하는 부모의 養育觀이나 養育態度가 어떠한 文化的 價值體系속에서 어떠한 特性을 지니며, 社會狀況이나 民族文化가 부모·자녀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戰略的으로는 通文化研究가 要請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研究로서 Whiting, B.B.⁴⁾가 행한 America의 異民族間의 부모의 行動의 比較, Urie Bronfenbrenner⁵⁾의 美國과 소련의 어린이의 養育에 대한 比較, Hess, R.D⁶⁾의 美國과 日本의 親子關係의 比較, 牛島義友⁷⁾의 西歐와 日本의 靑少年의 人格特性的의 比較등이 있으며, 世界各國에 있어서 相互比較研究⁸⁻⁹⁾가 행해지고 있다.

다음에, 어린이의 成長發達에 있어서 주요한 要素인 心理·社會的 特性에 대해서이다. 人間이 태어나 그 社會의 構成員으로 되기 위한 과정은, 그 個人이 소속되어 있거나 관계를 가지고 있는 集團이나 人間關係속에서 進行되며, 이러한 과정의 달

성은 그 社會構成員이 갖추어야 할 諸條件¹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취해야 할 公共心, 自主心과 같은 心理·社會的 特性은 個人과 社會를 연결하는 중요한 概念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個人과 社會의 關係, 個體가 社會化되어 한 人間으로 되는 과정의 中心的인 課題인 것이다. 이러한 心理·社會的 特性的의 基礎가 家庭에서 형성되며, 부모·자녀관계가 人格發達의 基本을 이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靑少年이 일으키는 문제가 날로 거칠어지고, 低年齡化하며, 非行靑少年이나 情緒障害兒의 發生件數도 증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들의 特性이 어떠한 文化的 價值體系속에서, 특히 어떠한 養育態度를 가진 부모가 키웠을 때에 일어나는가를 살펴보기 않으면 안 될 것이다.

本 研究에서는 위와 같은 問題意識을 基礎로 하며, 韓國과 日本과를 比較의 對象으로 하여, 부모의 養育態度를 規定하는 要因과 어린이의 心理·社會的 特性的의 2側面을 살펴 兩國間에 어떠한 차이점이나 유사점이 있는가를 명백히 하려하였으며, 더 나아가 부모의 養育態度와 어린이의 心理·社會的 特性과의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檢定하여,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바람직한 養育態度를 위한 基礎資料로 하고자 한다.

Ⅱ. 方 法

Ⅱ-1. 研究의 對象

韓·日 兩國의 국민학교 4,5,6학년의 아동들 對象으로 하였다. 실제 사용한 아동의 수는 韓國이 234명, 日本이 293명으로서, 學年別, 性別로 본 對象人數는 表 1과 같다. 국민학생의 아동중 高學年을 對象으로 한 것은, 調查方法이 質問紙法에 의한 것이므로 對象者의 理解도를 감안한 것이다.

韓國의 資料는 大邱市內 T 국민학교의 아동으로부터 얻은 것이며, 日本의 資料는, 大阪府 守口市의 0국민학교 아동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가능한 한, 兩國의 研究對象의 社會·經濟的 條件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이 점에 대해 특별한 고려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大邱市는 人口 200만을 넘는 韓國에 있어서의 第3의 도시이며, 守

〈表 1〉 韓·日兩國의 아동의 性別, 學年別 資料의 實數

國 別 學年別 性別	韓 國 (234人)			row total	日 本 (293人)			row total
	4	5	6		4	5	6	
男	43(18.38)	34(14.53)	48(20.51)	125(53.42)	59(20.14)	39(13.31)	50(17.16)	148(50.61)
女	32(13.67)	39(16.67)	38(16.24)	109(46.58)	49(16.72)	53(18.09)	43(14.68)	145(49.39)
Column total	75(32.05)	73(31.20)	86(36.75)	234 (100.00)	108(36.86)	92(31.40)	93(31.74)	293(100.00)

()안의 숫자는 백분률.

口市도 大阪市에 인접하는 中市로서, 두 市는 都市에서 볼 수 있는 生活樣式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II-2. 資料處理의 節次

韓·日 兩國의 調査에 있어서, 被檢者가 調査票에 각각 아동 自身이 認知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본인의 心理·社會的 特性에 대한 評價를 記入하도록 하는 自計方式을 採用하였으며 學級單位로 해서 集團의으로 실시하였다.

調査期間은 韓國의 경우, 1981년 7월 10일부터 同年 7월 20일까지였으며, 日本의 경우, 1981년 9월 10일부터 同年 9월 20일까지이다.

II-3. 指 標 化

調査票는, 아동이 認知한 그들의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부분과 아동 자신의 心理·社會的 特性을 측정하기 위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동일한 內容의 韓·日 兩國의 自國語에 의한 2種類의 調査票이다.

1) 調査 1 :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K 式 診斷의 新親子關係檢査¹⁾를 사용하였으며, 被檢者의 작업량을 경감시키기 위해 80項目 중에서 무작위추출법에 의해 40項目로 줄였으나 TK 式 診斷의 新親子關係檢査는 상당히 標準化되어 있어, TK 式 檢査와 같은 方法으로 整理하였다. 調査 1은, 아동자신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4단계 尺度로써 評價하는 것으로서, 「불만」 「비난」 「엄격」 「기대」 「간섭」 「걱정」 「익애」 「맹종」 「모순」 「불일치」의 각각의 項目得點의 總計²⁾를 내어 이것을 부모의 양육태도의 得點으로 하였다. 하나의 調査項目의 總計의 得點은 最低 4點에서 16點의 범위에 있으며, 得點이 높을수록 부모 자녀관계의 安定性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2) 調査 2 : 아동의 心理·社會的 特性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성」 「자립성」 「공격성」 「집단예의 참가」 「자발성」 「자기통제」 「공공심」의 7項目를 설정하였으며, 項目別 相關을 pearson의 相關係數로 살펴본 결과, 상당히 높은 相關이 있었다.

心理·社會的 特性의 概念은, E.W. Burgess의 著書 「The Family」¹⁾로부터 引用한 것이다. E.W. Burgess는 「The Family」에서 personality를 biogenic의 側面과 psychogenic의 側面과 sociogenic의 側面的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하였는데, 筆者는 psychogenic의 側面과 sociogenic의 側面的 양쪽을 포함하는 概念으로서 「心理·社會的 特性」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質問項目은 3단계 尺度로써 評定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項目의 總計³⁾를 내어, 그것의 合計點을 아동의 心理·社會的 特性의 得點으로 하였다. 得點은 最低 4點에서 最高 12點의 범위가 되며, 得點이 낮을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단, 「공격성」의 항목은 得點이 높을수록 공격적이지 않음을 나타낸다. 또한 調査項目으로서 선택한 28項目의 信賴

1) TK 式 診斷의 新親子關係檢査, 財團法人 田中教育研究所 編.

2) 「꼭 들어맞다」 : 1점 「대체로 맞다」 : 2점, 「그다지 맞지 않다」 : 3점 「전연 맞지 않다」 : 4점.

3) 「예」 : 1점, 「보통」 : 2점, 「아니오」 : 3점.

성을 檢定하기 위해, M.M.P.I.⁴⁾의 허구점(The lie scale) 중에서 13項目을 사용하였다. M.M.P.I.의 허구점은 2단계 尺度로써 評定하는 것이며, 得點은 最低 13點에서 最高 26點의 범위에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本 研究에서는 M.M.P.I.의 허구점을 참고로 하여, 22點 以上の 경우는 資料로서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調査 2에서 사용한 M.M.P.I.의 허구점이 22點 以上の 아동에 대해서는 調査 1도 資料로 부터 제외하였다.

II-4. 分析 構造

韓·日 兩國의 文化·社會의 條件을 說明變數, 아동의 心理·社會의 特性, 아동이 認知한 부모의 양

육태도의 2側面을 被說明變數로 하여, 構造機能主義社會學의 立場에서 명확히 하려고 하였다.

III. 結 果

III-1. 아동이 認知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서

結果를 TK 式檢査法에 準해서 10項目의 부모의 態度別로 平均得點을 算出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以下 아동의 性別, 年齡別의 條件을 첨가하여 韓·日 比較를 하고자 한다. 아동이 認知한 韓·日 兩國의 부모의 양육태도의 平均得點은 表 2와 같다. 統計的 檢定은 t檢定에 의한 것이며, 兩國間에 有意한 差를 나타낸 부모의 태도를 보면, 아버지의

<表 2> 아동이 認知한 韓·日 側國의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별	韓 國 (234人)		日 本 (293人)		危 險 率
		X̄	SD	X̄	SD	
불 만	부	11.55	3.51	10.81	2.98	0.01
	모	11.56	2.48	10.86	2.48	0.00
비 난	부	11.05	3.47	10.84	3.21	0.47
	모	10.67	2.48	10.54	2.74	0.58
엄 격	부	9.93	3.16	10.47	3.07	0.05
	모	9.96	2.41	10.25	2.44	0.18
기 대	부	8.21	3.13	10.09	3.36	0.00
	모	7.88	2.42	9.29	2.84	0.00
간 섭	부	9.34	3.30	10.84	3.18	0.00
	모	9.00	2.56	9.99	2.67	0.00
격 정	부	7.53	3.13	9.75	3.32	0.00
	모	7.27	2.50	8.63	2.83	0.00
익 애	부	8.65	3.32	10.89	3.23	0.00
	모	8.84	2.50	10.75	2.53	0.00
맹 종	부	8.29	3.09	11.31	3.22	0.00
	모	8.78	2.29	11.46	2.52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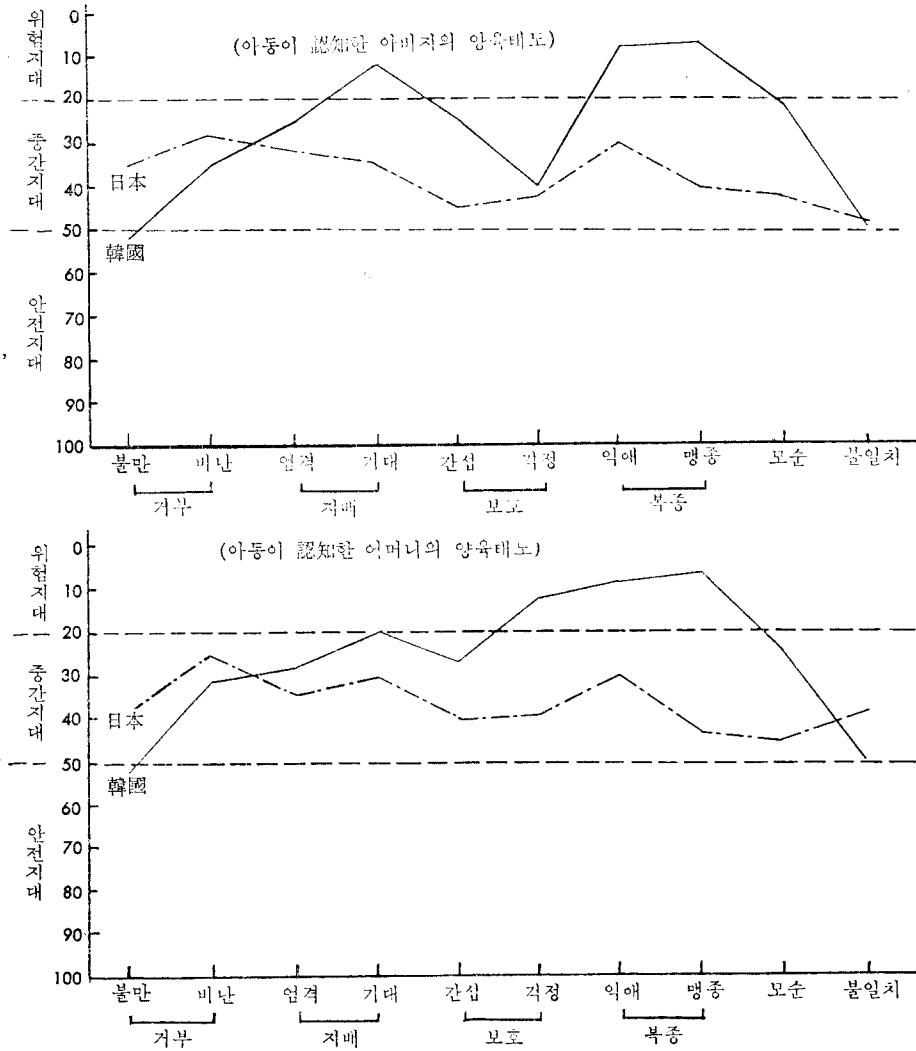
X̄ : 平均, SD : 標準偏差, 以下 同一
()안의 숫자는 人數

4) M.M.P.I.: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本論文에서는 日本版 M.M.P.I. 사용.

모 순	부	8.66	2.97	10.12	3.03	0.00
	모	8.90	2.35	10.13	2.56	0.00
불일치	부	10.59	3.40	10.46	3.05	0.63
	모	11.20	2.44	10.32	2.77	0.00

태도에서는 「불만」, 어머니의 태도에서는 「불만」 「불일치」의 태도에 있어서, 日本에 비해 韓國이 보다 바람직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日本의 아동은 韓國의 아동에 비해, 아버지의 「엄격」의 태

도에, 부모의 「기대」 「간섭」 「걱정」 「익애」 「맹종」 「모순」의 태도에서, 보다 바람직한 評價를 하고 있다. 이들의 得點을 百分位數(percentile)로 換算해서 나타내어 보면 圖 1과 같다. 圖 1에 의하면



[圖 1] 아동이 認知한 韓·日 兩國의 부모의 양육태도

〈表 3〉 性別로 본 아동이 認知한 부모의 양육태도(韓國)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별	남 자 (125人)		여 자 (109人)		위 험 륜
		\bar{X}	SD	\bar{X}	SD	
불 만	부	11.66	3.23	11.43	3.83	0.63
	모	11.62	2.47	11.48	2.50	0.65
비 난	부	10.93	3.09	11.19	3.87	0.57
	모	10.74	2.46	10.59	2.50	0.65
엄 격	부	9.99	2.84	9.85	3.50	0.74
	모	10.27	2.41	9.60	2.37	0.03
기 대	부	8.28	2.98	8.12	3.30	0.70
	모	8.08	2.50	7.64	2.31	0.17
간 섭	부	9.38	3.22	9.29	3.41	0.48
	모	8.87	2.53	9.14	2.59	0.43
걱 정	부	7.89	3.13	7.12	3.09	0.06
	모	7.37	2.54	7.15	2.47	0.50
익 애	부	9.25	3.21	7.96	3.34	0.00
	모	9.05	2.45	8.61	2.56	0.18
맹 중	부	8.93	2.95	7.57	3.05	0.00
	모	9.11	2.39	8.40	2.12	0.02
모 순	부	8.76	2.76	8.54	3.20	0.58
	모	8.95	2.38	8.83	2.32	0.70
불 일 치	부	10.98	3.26	10.16	3.51	0.07
	모	11.16	2.68	11.25	2.15	0.78

韓國의 경우, 자녀가 認知한 아버지의 태도중에서 「기대」 「익애」 「맹중」의 項目에 危險地帶를 나타내어, 자녀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익애하며 맹중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자녀가 認知한 어머니의 태도에서도 같은 경향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韓·日 兩國 모두 注意를 要하는 地帶인 20~50 percentile의 中間地帶에 分布하고 있다. 다음에, 아동의 性別에 따른 結果를 보면, 우선 韓國에 있어서 男女別 부모의 태도의 結果는 表 3과 같다. 表 3에 의하면, 男子가 女子에 비해 아버지의 「익애」 「맹중」의 태도, 어머니의 「엄격」 「맹중」의 태도에 바람직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경향으로서는 男子가 女子에 비해 부모 모두에 대해서 보다 바

람직한 부모·자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한편, 日本에 있어서의 男女別의 부모의 양육태도는 表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有意한 差를 나타낸 것에 대해 살펴보면, 男子는 女子에 비해 아버지의 「맹중」의 태도에, 어머니의 「익애」 「맹중」의 태도에 바람직한 경향이 보였으며, 이에 대해 女子는 男子에 비해 아버지의 「비난」의 태도에 바람직한 경향이 보였다.

다음에 아동의 性別에 따라 韓·日 兩國을 比較한 結果는 表 5와 같다. 우선 男子의 경우, 아버지의 「불만」, 어머니의 「불일치」의 태도에 있어서 韓國의 아동이 日本의 아동보다 바람직한 경향이 있으며, 부모의 「기대」 「간섭」 「걱정」 「익애」 「맹중」 「모순」의 태도에서는 日本의 아동이 韓國의 아

〈表 4〉 性別로 본 아동이 認知한 부모의 양육태도(日本)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별	남 자 (148人)		여 자 (145人)		위 험 륜
		\bar{X}	SD	\bar{X}	SD	
불 만	부	10.73	3.08	10.90	2.89	0.63
	모	11.10	2.47	10.61	2.47	0.09
비 난	부	10.45	3.35	11.23	3.01	0.04
	모	10.62	2.73	10.46	2.76	0.60
엄 격	부	10.12	3.27	10.82	2.83	0.05
	모	10.28	2.50	10.21	2.38	0.83
기 대	부	9.83	3.42	10.35	3.28	0.19
	모	9.15	2.72	9.44	2.96	0.38
간 섭	부	10.72	3.27	10.97	3.10	0.52
	모	10.14	2.71	9.84	2.63	0.35
격 정	부	10.12	3.36	9.37	3.24	0.06
	모	8.95	2.87	8.31	2.77	0.06
익 애	부	11.22	3.25	10.56	3.19	0.08
	모	11.08	2.58	10.42	2.44	0.03
평 중	부	11.69	3.38	10.93	3.02	0.04
	모	11.79	2.54	11.12	2.46	0.02
모 순	부	10.09	3.18	10.15	2.89	0.87
	모	10.32	2.54	9.93	2.58	0.20
불 일 치	부	10.47	3.11	10.44	3.00	0.93
	모	10.18	2.77	10.47	2.77	0.38

동보다 바람직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女子의 경우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性別에 의한 檢討의 結果도 全體의 結果와 거의 같음을 알수 있다.

TK 式 檢査는 국민학생 高學年에 대해서는 특히 學年에 의한 구별없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本 調本의 結果를 4,5,6학년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紙面上 구체적인 資料의 제시는 省略하나 韓國, 日本의 각각의 4학년과 5학년, 4학년과 6학년, 5학년과 6학년의 부모의 양육태도를 t 檢定으로 檢定한 결과, 韓國과 日本의 양쪽 모두 4학년에 비해 5학년, 6학년에 있어서 부모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가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認知한 부모의 양육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측의 연령에 따른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한 아동의 學年別 부모의 양육태도를 韓·日 比較한 結果를 보면 4학년, 5학년, 6학년 各各의 學年別에 의한 結果도 全體의 結果와 거의 같은 경향으로서, 「불만」「불일치」의 태도에 있어서는 韓國이 日本보다 바람직한 경향이었으나, 그 외의 태도에 있어서는 日本이 韓國보다 바람직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Ⅲ-2. 아동의 心理·社會의 特性에 대해서

아동의 心理·社會의 特性을 살펴본 결과는 表 6과 같다. 統計的 檢定은 t 檢定에 의한 것이며, 이들 각 態度得點의 人數分布는 모두 正規分布를 나타내고 있다. 心理·社會의 特性의 각각의 內容別로 韓·日比較한 결과, 「공격성」 이외의 項目에 있어

〈表 5〉 性別로 본 韓·日에 있어서의 아동이 認知한 부모의 태도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별	남 자				위험률	여 자				위험률
		韓 國 (125人)		日 本 (148人)			韓 國 (109人)		日 本 (145人)		
		\bar{X}	SD	\bar{X}	SD		\bar{X}	SD	\bar{X}	SD	
불 단	부	11.66	3.23	10.73	3.08	0.02	11.43	3.83	10.90	2.89	0.22
	모	11.62	2.47	11.10	2.47	0.08	11.48	2.50	10.61	2.47	0.01
비 난	부	10.93	3.09	10.45	3.35	0.22	11.20	3.87	11.23	3.01	0.93
	모	10.74	2.46	10.62	2.74	0.72	10.59	2.50	10.46	2.76	0.69
엄 격	부	9.99	2.84	10.12	3.27	0.73	9.85	3.50	10.83	2.82	0.02
	모	10.27	2.41	10.28	2.50	0.99	9.60	2.37	10.21	2.38	0.04
기 대	부	8.28	2.98	9.83	3.42	0.00	8.12	3.30	10.35	3.28	0.00
	모	8.08	2.50	9.15	2.72	0.00	7.64	2.31	9.44	2.96	0.00
간 섭	부	9.38	3.22	10.72	3.27	0.00	9.29	3.41	10.97	3.10	0.00
	모	8.87	2.53	10.14	2.71	0.00	9.14	2.59	9.84	2.63	0.03
격 정	부	7.90	3.13	10.12	3.36	0.00	7.12	3.09	9.37	3.24	0.00
	모	7.37	2.53	8.95	2.87	0.00	7.15	2.47	8.31	2.77	0.00
익 애	부	9.25	3.21	11.22	3.25	0.00	7.96	3.34	10.56	3.19	0.00
	모	9.05	2.45	11.08	2.58	0.00	8.61	2.56	10.42	2.44	0.00
명 중	부	8.93	2.95	11.69	3.38	0.00	7.57	3.05	10.93	3.02	0.00
	모	9.11	2.39	11.79	2.54	0.00	8.40	2.12	11.12	2.46	0.00
모 순	부	8.76	2.76	10.09	3.18	0.00	8.54	3.20	10.15	2.89	0.00
	모	8.95	2.38	10.32	2.54	0.00	8.83	2.32	9.93	2.58	0.00
불일치	부	10.98	3.26	10.47	3.11	0.20	10.16	3.51	10.44	3.00	0.50
	모	11.16	2.68	10.18	2.77	0.00	11.25	2.15	10.47	2.77	0.01

〈表 6〉 韓·日 兩國의 아동의 心理·社會的 特性

國別 得點	韓 國 (234人)		日 本 (293人)		위험률
	\bar{X}	SD	\bar{X}	SD	
사 회 성	6.94	1.44	7.60	1.48	0.00
자 립 성	7.48	1.57	7.08	1.59	0.00
공 격 성	8.84	1.79	8.64	1.84	0.21
집 단에 의 참 가	6.73	1.52	7.00	1.49	0.04
자 발 성	6.73	1.61	7.41	1.66	0.00
자 기 통 제	7.10	1.59	7.42	1.67	0.03
공 공 심	6.73	1.57	7.01	1.42	0.03

서 有意한 差가 있었다. 즉 「사회성」 「자립성」 「집 단에의 참가」 「자발성」 「자기통제」 「공공심」에 有意한 差가 있었으며, 自立性을 제외한 모든 項目에 있어서 韓國의 아동이 日本의 아동보다 바람직한 경향이 보였다. 그러나 「자립성」의 項目에서는 日本의 아동이 韓國의 아동에 비해 바람직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전체로서 韓國의 아동이 日本의 아동보다 心理·社會的 特性에 있어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아동의 性別에 의한 差를 檢定하였다. 表 7은 韓國의 아동의 경우이며, 公共心의 項目에만 有意한 差가 보여, 女子보다 男子가 바람직한

〈表 7〉 性別로 본 아동의 心理·社會의 特性(韓國)

性別 得點	남 자 (125人)		여자 (109人)		위험률
	\bar{X}	SD	\bar{X}	SD	
項目別					
사회성	6.95	1.56	6.94	1.29	0.93
자립성	7.49	1.58	7.48	1.57	0.96
공격성	8.98	1.90	8.68	1.64	0.19
집단에서의 참가	6.67	1.63	6.79	1.39	0.56
자발성	6.70	1.69	6.75	1.51	0.82
자기통제	7.03	1.75	7.18	1.39	0.46
공공심	6.52	1.61	6.96	1.49	0.03

〈表 8〉 性別로 본 아동의 心理·社會의 特性(日本)

性別 得點	남 자 (148人)		여자 (145人)		위험률
	\bar{X}	SD	\bar{X}	SD	
項目別					
사회성	7.64	1.56	7.57	1.39	0.66
자립성	7.24	1.60	6.92	1.57	0.08
공격성	8.65	1.71	8.63	1.98	0.95
집단에서의 참가	7.28	1.39	6.72	1.54	0.00
자발성	7.71	1.67	7.10	1.60	0.00
자기통제	7.68	1.76	7.17	1.54	0.01
공공심	7.16	1.50	6.86	1.33	0.08

경향이다. 한편 日本의 아동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表 8과 같다. 表 8에 의하면 「집단에서의 참가」 「자발성」 「자기통제」에 있어서, 女子가 男子보다 바람직한 경향으로 有意한 差가 있었다. 이것은 韓國의 아동의 性別로 본 결과와는 다른 경향으로서 日本에서는 女子가 男子보다 바람직한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韓國에서는 公共心の 項目에 있어서 男子가 女子보다 바람직한 경향이다. 以上을 직접 韓·日 兩國의 同性別로 比較한 結果가 表 9이다. 우선, 男子에 대해서 兩國間에 有意한 差를 나타낸 項目을 들어보면 「사회성」 「집단에서의 참가」 「자발성」 「자기통제」 「공공심」이며, 이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韓國의 아동이 보다 바람직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女子의 경우 「사회성」 「자립성」의 항목에 有意差가 있었으며, 「사회성」의 측

면은 韓國의 아동에게, 「자립성」의 측면은 日本의 아동에게, 보다 바람직한 경향이 보였다. 따라서, 男子의 경우는 韓國의 아동이 日本의 아동보다 心理·社會의 特性的의 面에 있어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女子의 경우는 兩國間에 그다지 差가 없는 것 같다. 또한, 아동의 心理·社會의 特性을 韓國·日本의 各各의 4학년과 5학년, 5학년과 6학년, 4학년과 6학년을 t檢定으로 檢定한 結果, 각 학년에 있어서 有意差를 나타낸 項目이 반드시 같지는 않았으나, 韓國과 日本의 양쪽 모두, 全體的 경향으로서는 근소한 得點의 差이기는 하지만, 4학년생보다는 5학년생이, 5학년생보다는 6학년생이 心理·社會의 特性이 바람직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동의 學年別 心理·社會의 特性에 의한 韓·日比較의 結果를 보면, 4학년생의 경우

〈表 9〉 韓·日에 있어서 性別로 본 아동의 心理·社會의 特性

性別 得點	남 자				위험률	여 자				위험률
	韓國 (125人)		日本 (148人)			韓國 (109人)		日本 (145人)		
	\bar{X}	SD	\bar{X}	SD		\bar{X}	SD	\bar{X}	SD	
項目別										
사회성	6.95	1.56	7.64	1.56	0.00	6.94	1.29	7.57	1.39	0.00
자립성	7.49	1.58	7.24	1.60	0.21	7.48	1.57	6.92	1.57	0.01
공격성	8.98	1.90	8.65	1.71	0.13	8.68	1.64	8.63	1.98	0.85
집단에서의 참가	6.67	1.63	7.28	1.39	0.00	6.78	1.39	6.72	1.54	0.70
자발성	6.70	1.69	7.71	1.67	0.00	6.75	1.51	7.10	1.60	0.08
자기통제	7.03	1.75	7.68	1.76	0.00	7.18	1.39	7.17	1.54	0.92
공공심	6.52	1.61	7.16	1.50	0.00	6.96	1.49	6.86	1.33	0.58

「사회성」「자발성」에 有意한 差가 있었으며, 韓國의 아동이 바람직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5학년생의 경우 「사회성」에 있어서 韓國의 아동이 보다 바람직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6학년생에 있어서는 「공격성」「집단예의 참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有意差가 있었으며, 「자립성」의 側面은 日本의 아동이 보다 바람직한 경향을 보였으며, 그 외의 항목에서는 韓國의 아동이 日本의 아동에 비해 바람직한 경향이다. 이와 같이, 학년별에 의한 檢討의 결과도 전체의 결과와 거의 같으나 6학년생에

있어서 韓·日間에 有意하게 큰 差를 볼 수가 있었다.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서 兩國間의 아동의 心理·社會的的特性의 側面에 差가 있다는 것은 보다 더 성장했을 때, 어떠한 차이로 변화해 갈 것인가가 주목된다.

Ⅲ-3. 아동이 認知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心理·社會的的特性과의 關係에 대해서

아동이 認知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항목과 아동

〈表 10〉 아동이 認知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心理·社會的的特性과의 關係(韓國)

부모의 養育態度		心理·社會的 特性						
		사회성	자립성	공격성	집단예의 참가	자발성	자기통제	공공심
아동이 認知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거부 { 불만 비난	*			**	**	**	*
	지배 { 엄격 기대			*			**	**
	보호 { 간섭 적정	**			*			
	부종 { 애 맹	**	**		**	**	*	**
	모순 불일치				**		**	**
아동이 認知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거부 { 불만 비난		*	**	**	**	*	**
	지배 { 엄격 기대		*	**				*
	보호 { 간섭 적정	**			**	*	**	*
	부종 { 애 맹	**	*		**	**	**	**
	모순 불일치			*		*	*	

- ; 마이너스 相關이 있는 項目 *; 5%이하의 위험률의 有意한 相關 **; 1%이하의 위험률의 有意한 相關

〈表 11〉 아동이 認知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心理·社會的 特性과의 관련(日本)

心理·社會的 特性		부모의 養育態度		사회성	자립성	공격성	집단에의 참가	자발성	자기통제	공공심
		거부	지배	보호	부종	모순 불일치	거부	지배	보호	부종
아동이 認知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거부	불만 비난		**	**	**	**	**	*	
				**	**			*	**	
	지배	엄격 기대			*					
	부종	간섭 걱정 애 행		*	*		*	*	*	*
				**		**	**	**	**	**
						**				
					**					
아동이 認知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거부	불만 비난	*	*	*	*	**	**	**	*
					*	**	*	*	*	*
	지배	엄격 기대		*	**	**	**	*	*	*
					**	**	**	*	*	*
	부종	간섭 걱정 애 행	**	**	*	**	**	*	*	*
				**	**	*	*	*	*	
					**			*	*	
					**			*		

- ; 마이너스 相關이 있는 項目 * ; 5% 以下の 위험률의 有意한 相關 ** ; 1% 以下の 위험률의 有意한 相關

의 心理·社會的 特性의 항목을 pearson 相關係數로 살펴보았다. 表 10은 韓國의 아동이 認知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心理·社會的 特性과의 관련을 살펴본 결과이다. 우선, 아버지의 양육태도부터 보면, 아버지가 그다지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認知하고 있는 아동이 「사회성」 「자발성」 「공공심」이 있으며 「집단에 잘 참가」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아버지가 아동자신에 대해 「비난」하고 있지 않다고 認知하고 있는 아동이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으며, 그다지 「엄격」하지 않고,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認知하고 있는 아동이 「공격적」이지 않으며, 「자기통제」를 할 수 있으며, 「공공심」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모순」이 없다고 認知하고 있는 아동이 「집단에 잘 참가」하며, 「자기통제」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父母間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認知하고 있는 아동이 「公共心」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동 자

신을 「보호」 혹은 어느 정도 「간섭」하고 있다고 認知하고 있는 아동이 「사회성」이 있으며, 자기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고 認知하고 있는 아동이 「집단에 참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자기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고 認知하고 있는 아동이 「사회성」이 있으며, 「집단에 참가」하며, 「자발적」이고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자립성」이 있다고 각각 판단하고 있다. 어머니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表 10의 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認知된 부모의 拒否의 태도를 「불만」 「비난」의 指標로서, 부모의 支配的 태도를 「엄격」 「기대」의 指標로서, 부모의 保護의 태도를 「간섭」, 「걱정」의 指標로서, 부모의 服從의 태도를 「익애」 「맹종」의 指標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모의 태도를 그다지 拒否의이지 않고 支配的이지 않다고 認知하며 아동 자신을 保護해 주고, 자기에게 어느 정도 服從해 준다고 認知하고 있는 아동이 心理·社會的的特性이 發達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 日本의 아동이 認知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心理·社會的的特性과의 관련을 살펴본 결과는 表 11과 같다. 아동이 認知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보면, 아버지가 그다지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認知하고 있는 아동은 「자립」 「자발」적이며 「공격적」이지 않고 「집단에 잘 참가」하며, 「자기통제」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아버지가 아동 자신에 대해서 그다지 「비난」하고 있지 않다고 認知하고 있는 아동은 「자립적」이며 「공공심」이 있으며 「공격적」이지 않고, 「자기통제」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기대」 「모순」 「불일치」의 아동에 의한 認知의 항목을 보면, 아버지가 아동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고 「모순」되어 있지 않으며, 또 父母間의 양육태도나 의견등이 일치하고 있다고 認知하고 있는 아동은 「공격적」이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간섭」의 認知의 항목을 보면, 보다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認知하고 있는 아동이 心理·社會的的特性에 있어서 「공격적」이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간섭」한다고 認知하고 있는 아동의 心理·社會的的特性으로서 「집단에 참가」하며, 「자기통제」를 할 수 있고 「공공심」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걱정」 「익애」 「맹종」의 항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걱정」해 주고, 아동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고 認知하고 있는 아동이 「사회성」이 있으며 「자립적」이며 「집단에 참가」하며 「자발적」이며, 「자기통제」를 할 수 있고 「공공심」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머니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日本의 아동도 韓國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태도를 그다지 拒否的이지 않고 支配的이지 않다고 認知하며, 또 아동 자신을 保護해 주고, 자기에게 服從해 주는 즉, 아동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고 認知하고 있는 아동이 心理·社會的的特性이 발달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IV. 結論 및 今後의 課題

지금까지 韓·日 兩國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personality의 心理·社會的 측면을 구체적인 資料로 比較·檢討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어린이의 心理·社會的 측면과의 相關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資料에 의하면, 日本의 아동이 韓國의 아동보다도 부모가 자녀에 대해 보다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부모간의 양육태도에 「불일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韓國의 어린이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를 「엄격」 「기대」 「모순」등의 특성으로 특징지우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에 의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認知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왜일까. 여러가지의 要因이 關與되어 있다고 생각되나, 筆者가 調査한 韓·日 兩國間의 어머니의 養育觀¹²⁾을 참고로 하여 分析해 보고자 한다. 紙面上 資料의 提示는 省略하나 資料에 의하면, 日本의 어머니는 아동이 무엇인가 나쁜 일을 했을 경우, 아동이 납득할 때까지 注意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半無意識的으로 그것을 허용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아버지에게 注意받게 한다」고 하는 兩價的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비교적 강하며, 그러한 것이 아동의 「兩親間의 不一致」라고 하는 認知形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부모가 「불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아동의 認知는, 자

녀가 어떤 나쁜 일을 했을 때, 日本의 어머니의 특징적인 양육태도, 즉 「愛情을 주지 않는 행위」 「자녀를 무시하는 행위」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韓國의 아동이 認知하고 있는 부모의 태도 즉, 「익애」 「맹중」은 韓國의 어머니가 日本의 어머니 以上으로 자녀에게 「特權을 주거나」 「금전을 주거나」 하는 양육행위와 관계가 있으며, 또 韓國의 아동이 認知하고 있는 부모의 「기대」 「간섭」 「적정」은, 韓國의 부모가 자녀의 能力 以上으로 高學歷등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韓國의 어머니는 日本의 어머니보다도 자녀에게 「高學歷」과 「이름을 떨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日本의 어머니는 韓國의 어머니보다도 「자신의 취미에 맞는 생활」을 원하고 있으며, 더구나 그 差는 統計적으로 有意한 差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認知는, 위와 같은 부모의 養育觀과 관계가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다음에 아동이 認知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性別로 본 결과, 韓·日 兩國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男女差가 반드시 크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韓國에서는 男子아동이 女子아동보다 부모 모두에 대해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보다 바람직하게 認知하고 있다. 이와 같은 結果는, 兩國의 價値體系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現在, 韓國은 日本과 마찬가지로 資本主義體制를 취하고 있으나 生活慣行이나 life-style 등에 있어서는 日本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韓國에서는 依然하게 儒敎思想이 생활에 침투되어 있으며 傳統的 家族制度가 많이 남아 있어, 男兒選好思想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들의 價値意識이 자녀의 양육태도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아동의 personality의 心理·社會의 特性에 대해서이다. 「사회성」 「집단에서의 참가」 「자발성」 「자기통제」 및 「공공성」에 있어서, 韓國의 아동이 日本의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 있다. 人間은 태어나면서부터 社會化(socialization)를 통해 그 社會에서 自己存在를 확립시켜 간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社會가 어떻게 그 個人을 그 社會構成員으로 만들어가느냐 하는 側面과, 個人이 어떻게 해서 그 社會의 構成員

으로 되어가느냐 하는 側面이 포함되어 있다. 이 社會化過程은 그 個人이 소속된 集團이나 人間關係 속에서 행해지며, 또 그 個人的 연령이나 性別, 發達段階, 體質, 知能등의 특징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 社會化過程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社會에서의 構成員이 달성해야 할 條件이며, 그것은 性格特性, 性格全體, 人格役割의 選擇方法, 그 個人的 生活目標등의 形으로서 생각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社會化過程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設定한 心理·社會의 特性은 個人과 社會와의 관계, 個體가 社會化되어 가는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課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心理·社會의 特性이 가지는 意味와 役割은 社會體制나 社會構造가 달라지면, 그에 대응하는 형태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성」 「집단에서의 참가」 「자발성」 「자기통제」 및 「공공성」이 韓國의 아동들에게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理由는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韓國의 아동들이 國家統一을 위한 文化的 價値體系, 혹은 政治, 敎育, 經濟制度에 대해서, 보다 강하게 同一化하도록 家庭, 學校, 社會에서 敎育되고 있다는 것과 關係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韓國의 아동들에게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上述의 心理·社會의 特性은 潛在적으로 아동들의 自己實現(self-actualization)을 달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의 心理·社會의 特性을 性別로 보면, 韓國의 男子아동의 心理·社會의 特性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韓國의 男子 아동의 경우, 부모가 「이름을 떨칠 것」이나 「國家·社會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산다」고 하는 社會中心의인 人生目標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以上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양육관 및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認知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心理·社會의 特性과의 관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韓國과 日本의 各各에 있어서의 관련성을 종합해 보면, 부모의 태도가 拒否的이지 않고 支配的이지 않다고 認知하며 부모가 아동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고 認知하고 있는 아동이 心理·社會의 特性이 발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어린이는 心身의 발달과 함께 그 行動空間을 넓혀가기 마련이며, 이와 같은 어린이를 둘러싼 家庭에서의 부모와의 관계, 學校에서의 선생이나 친구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등이 모두 어린이의 成長, 發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생각하면서도 일반적으로, 人格의 中樞의 部分이 家庭속에서 형성되어 가는 것을 생각하면, 부모와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意味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圖 1에서 나타낸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絶對評價에서는 韓·日 兩國 모두 注意를 要하는 中間地帶이었으며, 반드시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非行少年이나 問題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부모-자녀관계 診斷檢査에 있어서 危險地帶을 나타내는 경향이 강한 것을 생각할 때, 부모는 자녀의 건전한 成長을 위하여 언제나 바람직한 태도로써 자녀를 대하도록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以上 研究內容에 대해 考察해 왔으나, 假說性을 가진 이들 考察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檢定할 必要性이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今回의 資料는 아동이 認知한 부모의 養育態度이며, 또 아동이 自己自身에 대해 評價한 心理·社會的 特性이다. 今後의 課題로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자기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認知하고 있으며, 또 부모 혹은 제 3자가 評價하는 아동의 心理·社會的 特性을 調査하여, 더욱 總合적으로 分析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參 考 文 獻

1. Edited by Altman I. & Wobliwill, J.F., "Children and Environment" *Human behavior and Environment* Vol. 3, 1979.
2. 大西憲明 監修, "幼兒教育의 設計", 大阪市立大學兒童教育學研究室編, 1973.
3. 柏木惠子, "子どもの發達, 學習, 社會化" 有斐閣, 1982.
4. Whiting, B.B. and Whiting, J.W.M., "Children in Six Cultures; A Psycho-Cultural Analysis," Harvard Univ. Press, 1975.
5. Bronfenbrenner, Urie., *Two Worlds of Childhood USA and USSR*, George Allen and Unwin, 1970.
6. Hess, R.D., 柏木惠子, 東洋 "母親의 態度, 行動と子どもの知的發達, 日·米比較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81.
7. 牛島義友, "西歐と日本の人間形成" 金子書房, 1967.
8. 總理府青少年對策本部編, "國際比較, 日本の子どもと母親, 1981.
9. 總理府青少年對策本部編, "國際比較, 青少年と家庭", 1982.
10. 菊池章夫, 齊藤耕二編, "社會化의 理論" 有斐閣雙書, 1979.
11. Burgess, E.W. and Locke, "The Family; From Institution to Companionship" American Book Company, 1950. pp.209~330.
12. 洪上旭, "韓·日兩國의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2호, 1984, pp.143~157.
13. 金在恩, "韓國家庭에서의 父母—子女關係" 韓國文化研究院論叢, Vol. 10, 1967.
14. 小西勝一郎, 山本みづほ "親への同一視について—親の態度, 子の性格との關連" 大阪市立大學生活科學部紀要, 26卷, 1978.
15. Phyllis Bronstein-Burrows "Parents of parent behavior; A cross-cultural study" merrill palmer quarterly behavior and development, 1981.
16. 安福禮 "어머니의 養育態度와 어린이의 性格形成에 관한 一調査研究" 大邱敎大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Vol. 7.
17. 朴俊熙, "韓國人の 教育觀研究—韓國人の 子女教育態度를 中心으로" 韓國文化研究院論叢 第5輯, Vol. 5.
18. 李元寧 "兒童의 社會的 特性과 어머니의 養育方法 및 態度에 관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11호 3권, 1973.